

## 제1 교시

##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체험 학습 때 저희 천문대에 오셔서 별을 관측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대답을 듣고)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체 망원경이 없었던 조선 시대에도 하늘을 관측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응을 보고) 잘 모르는 학생이 많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는 조선 건국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히기 위해 큰 비석에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새겼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컴퓨터로 재현한 것입니다. (화면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여기 '천상(天象)'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하늘의 형상을 뜻합니다. 옆의 '열(列)'은 무슨 뜻일까요? 펼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次)'와 '분야(分野)'는 구획을 나눠 체계적으로 별을 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 바로 아래를 보시면, 가운데에 '天'이 표기된 원형의 중성기가 있습니다. 중성기는 24절기의 황혼과 새벽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에 따른 별의 위치로 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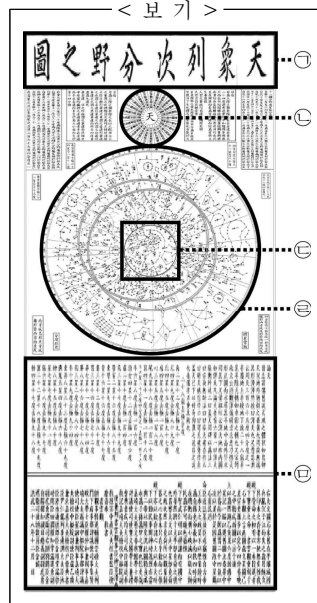
(화면을 가리키며) 천문도 중앙에는 원형의 별 그림인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문대에서 봤던 별자리가 보이시나요?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군요. 그럼 지난번에 직접 관측했던 북극성도 잘 찾으셨겠네요.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화면을 바꾸며) 이 부분은 성도의 외곽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한 예로, 여기 경계선 주변의 두 별을 보십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 차이는 별의 밝기가 다를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별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동시대 중국의 천문도와 다른 점입니다.

성도의 아래에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문을 관측해 중성을 바로잡는 것은, 요와 순의 정치를 본받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문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하늘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리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선조들의 열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을 시작할 때 강연 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의 흐름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② 질문을 던져 청중이 강연자와 다른 관점에서 강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의 변화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마무리하여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lt;보기&gt;는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② ㉡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언급하며 밤의 시각을 알기 위해 중성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을 확대해 보여 주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 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가 성도에 그려져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④ ㉣의 외곽 경계선 주변의 별들을 확대해 보여 주며 성도와 동시대 중국 천문도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 ⑤ ㉤의 일부를 인용하며 선조들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제시하였다.

3. 다음은 강연을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천체 망원경 없이 하늘을 관측했다니 놀랍네.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또 어떤 기준으로 '차'와 '분야'의 구획을 나누었는지도 알아봐야겠어.
- 학생 2: 조선 시대에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런데 '남중', '중성' 같은 말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어. 이 말들의 의미는 따로 찾아봐야겠어.
- 학생 3: 태조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어. 천문이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강연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강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7] (가)는 도서부원들 간의 토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도서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 독서 대화'의 참여 인원이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줄었어. 오늘 토의에서는 이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학생 2: 작년에는 모든 모둠에서 읽어야 할 도서가 한 권뿐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선정 도서의 내용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 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야.

학생 3: 맞아. 그리고 홍보의 부족도 참여가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 작년에는 도서관 앞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 안내문을 붙여 놓았거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 대화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거야.

학생 1: ㉢ 선정 도서가 한 권밖에 없었고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이밖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

학생 3: 작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화제가 잘 맞지 않아 대화가 산만하게 이루어져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어.

학생 2: ㉣ 우리 모둠에서도 화제가 잘 맞지 않아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학생 1: ㉤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먼저 책 선정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

학생 2: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선정 도서에 포함해 주는 것은 어때?

학생 3: 그러면 선정 도서가 다양해지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독서 대화를 위한 모듬을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도서부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도서들 중에서 [A] 세 권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네. 그렇게 세 권을 선정하도록 하고, 세 권 중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 기입하도록 참가 신청서를 만들자.

학생 1, 3: 그래, 좋아.

학생 1: 모듬별로 독서 대화를 할 때에, 화제를 서로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 3: 우리 도서부에서 선정 도서별로 화제를 미리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할 거야. 우리가 제시한 화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이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B] 않을 것 같아. 학생들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 3: 그게 좋겠다.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면 되겠어.

학생 1: 홍보가 부족했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생 2: 학교 신문에 안내문을 실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내가 초고를 써 올게.

학생 1, 3: 그래. 초고를 써 오면 다 같이 모여 수정하자.

(나)

'○○ 독서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될 독서 대화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요? 도서부에서는 매년 '○○ 독서 대화'를 진행하여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일 금요일 17시에 도서관에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작년과 달리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도서부에서 세 권의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독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일까지 도서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신청서에 꼭 기입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독서 대화'에 참여를 신청한 분들은 선택한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행사 3일 전까지 도서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3'이, [B]에서는 '학생 2'가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학생 2'가, [B]에서는 '학생 3'이 상대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학생 2'가, [B]에서는 '학생 3'이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상대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A]에서와 달리 [B]에서는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며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고 있다.
- ⑤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6. 다음은 ‘학생 2’가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올해와 작년 독서 대화의 차이점 제시 ..... ㉠
- 독서 대화에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 제시 ..... ㉡
- 독서 대화를 위해 선정할 도서의 분야 제시 ..... ㉢
- 독서 대화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준비 사항 제시 ..... ㉣
-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 제시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되고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를 참고해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1:** 마지막 부분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추가하도록 하자.

**학생 3:** 부제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도 드러내면 더욱 좋을 것 같아.

- ① 책을 읽으며 독서 대화를 위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보세요. 책을 깊이 읽고 내면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② 도서부는 독서 대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③ 누구나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④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⑤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넓고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경험은 학창 시절의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일기

○○로부터 최근에 겪은 일을 들었다. ㉠ 친구 관계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잠시 썼다가 지웠던 글이 △△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난처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잊힐 권리’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 학급 친구들 중에는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급 신문에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 전체 응답자 중 70%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년 연속 67%, 69%, 73%로 증가했다. ... (중략) ...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에 ㉥ 잊힐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 이 법률에서는 현재 잊힐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은 현실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률 전문 잡지 -

(다) 학생의 초고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남겨 놓은 개인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의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를 중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과거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가령 A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글, 사진,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A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조항이 없다. 한편 사생활 침해라고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에 삭제할 법적 방법이 없다. 이처럼 현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사진이나 자유로운 생각 등이 여러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주로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진첩이나 일기장 등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여러 인터넷 공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권리들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면 더욱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8. (가)의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② ㉡을 고려해, ‘잊힐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 ③ ㉢을 고려해, ‘잊힐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해, ‘잊힐 권리’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로 잊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 ③ ㉢의 내용을 찾아,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 ④ ㉣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한계를 제시했다.
- ⑤ ㉣을 일반화하여, 인터넷 공간이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 주는 만큼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인 기록들 중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 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 ② 법적 장치를 통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 ③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각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을 더 많은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④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1. <보기>의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발음을 하며 발에 ㉡ 뻗힌 벌을 보았다.
- ㉢ 술한 시련을 이겨 내 승리를 ㉣ 굳혔다.

- ① ㉠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 ㉠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트’이 연음된다.
- ③ ㉢와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으)ㄹ’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는 ‘-(으/오)ㄴ’과 ‘-(으/오)ㄹ’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ㄴ’ 앞에 선어말 어미 ‘-느-’를 붙여 나타냈다. 예컨대 ‘八姦女の 기론 찻트리 모즈랄썩(팔채녀가 길은 찻물이 모자라므로)’에서 ‘八姦女の 기론’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고, ‘주글 싸르미어니(죽을 사람이니)’에서 ‘주글’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다. 그리고 ‘本來 求ᄃᆞᆫ 밋ᄃᆞᆫ 밋ᄃᆞᆫ(본래 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에서 ‘本來 求ᄃᆞᆫ’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ㄴ’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곧 ‘-ㄴ’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ᄃᆞᆫ 혼 조초(그대 한 것 좇아)’에서 ‘그ᄃᆞᆫ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ᄃᆞᆫ-+-오-+-ㄴ]에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ㄴ’은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威化 振旅ᄃᆞᆫ시노로(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키신 것으로)’에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ㄴ’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ᄃᆞᆫ시노로’[ᄃᆞᆫ-+-시-+-ㄴ+오로]는 ‘-ㄴ’ 바로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예이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a~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福이라 호ᄃᆞᆫ[ᄃᆞᆫ-+-오-+-ㄴ+을] 나스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러)
- b. 智慧 너비 비ᄃᆞᆫ[비취-+-ㄹ] 느지오  
(지혜가 널리 비칠 조짐이오)
- c. 法 즐기ᄃᆞᆫ[즐-+-이-+-ㄴ-+-ㄴ] 밋ᄃᆞᆫ 밋ᄃᆞᆫ  
(법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 ① a의 ‘호ᄃᆞᆫ’에서 조사가 어미 ‘-ㄴ’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a의 ‘호ᄃᆞᆫ’에서 ‘-ㄴ’은 ‘-ㄴ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b의 ‘비ᄃᆞᆫ’에서 ‘-ㄹ’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3. 밑글을 근거로 <보기>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탐구 자료]**

- ㉠ 힘찬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 누나는 ㉡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렸다.
- 나는 ㉢ 형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 ㉣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변함없다.

**[탐구 과정]**

동격 관형절에 해당하니까?

아니요 → [A]

예 ↓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니요 → [B]

예 ↓

[C]

- |   | [A]  | [B]  | [C]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을 수 있다.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①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③ ㄱ의 ‘구을’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④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5.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남북한의 사전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와 (나)의 자료를 비교해 볼까요?

(가) 표준국어대사전

대로<sup>1</sup> 「의존 명사」

-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본 대로.
-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라.
-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각. ㉢ 틈나는 대로 찾아 보다.

대로<sup>10</sup> 「조사」 (체언 뒤에 붙어)

-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나) 조선말대사전

대로<sup>6</sup> [명](불완전\*)

- (1) (앞에 오는 단어가 뜻하는 것과) 다름없이. ㉠ 명령대로 집행하다.
- (2) (앞에 오는 단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과) 같은 모양대로. ㉡ 책이 그가 펼쳐놓은대로 있었다.
- (3) 앞에 온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즉각. ㉢ 생각나는대로 적다.
- (4)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의 뜻을 나타낸다. ㉣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초소는 달랐다.

\* 불완전: 의존 명사를 뜻하는 말.

- ①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sup>10</sup>'과 (나)의 '대로<sup>6</sup>'은 앞말에 붙어 사용되었습니다.
- ②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sup>10</sup>-(1)'은 (나)의 '대로<sup>6</sup>-(4)'와 쓰임이 유사합니다.
- ③ 품사 정보를 보니 (가)의 '대로<sup>1</sup>', '대로<sup>10</sup>'과 (나)의 '대로<sup>6</sup>'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수 없는 말입니다.
- ④ 뜻풀이를 보니 (가)의 '대로<sup>1</sup>', '대로<sup>10</sup>'과 (나)의 '대로<sup>6</sup>'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입니다.
- ⑤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에서는 조사이지만, (나)에서는 명사입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아득한 냇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의 슬퍼하는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뱃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썰론\*이 십리길을 따러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모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파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 아득한 새 냇날이 비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뱃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라는 나의 힘은 없  
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뱃돌: 뱃돌지.

\* 썰론: 썰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나)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서늘라운 모시옷 물맛 나는 한 사발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

붕당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고여 흐르는 게 아니라요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 오백 년 한숨, 샷갯머리에 후득이는  
밤 쏘낙 빗물소리.....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황토 현을  
넘어가던

정소리 팽파리 소리들.....

남도의 마을마다 질펀히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흰 연기 자욱한 모닥불 그을음 내, **몽당 빗자루**도 개 터럭도  
**보리 송년**도 **맹벌**도  
열개빛도 쇠그릇도 **문동이 장타령**도  
타는 내음.....

아 창호지 문발 틈으로 스미는 남도의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 **푸른 숨소리**, 청청한 청청한  
햇빛파리의 ㉡ **맑은 숨소리**.

-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가): 2연의 ‘슬퍼하든 것’, ‘불드든 말’, ‘울든 것’ 등은,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여졌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이겠군.
- ② (가): 3연의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가): 6연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북방으로 간 화자가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연결하여 느낀 상실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 3연의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징소리 꿩파리 소리들’은,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이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 4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 송년’, ‘문동이 장타령’ 등은, 남루한 삶 속에서도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겠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으로의 변주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서 ㉡으로의 변주는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 ㉢로의 변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하여 화자가 새롭게 인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양태백은 첩 송녀에게 미혹되어 부인과 세 남매를 내쫓는다. 부인은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세 남매는 양태백을 찾아간다. 양태백은 송녀의 뜻에 따라 세 남매를 노복처럼 부리다가, 수년이 지나 장녀인 채옥을 송녀의 사촌과 결혼시키려 한다. 채옥이 이를 거절하자 양태백은 세 남매를 모두 내친다.

채옥 등이 또 불의지경을 당하매 더욱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정신을 차려 생각하되, ‘다시 영산으로 갈밖에 없다.’ 하고, 인하여 풍을 이끌고 영산으로 찾아간즉, 할미가 이미 죽었는지라. 흥격이 막혀 모친 묘하에 가 일장통곡하고, 일신이 고달파 잠깐 졸더니 문득 모친이 곁에 앉으며 왈, “너희 나를 보려 하거든 옥룡전을 찾아오라.” 하거늘, 채옥 등이 놀라 깨어 চে읍하다가 생각하매, ‘모친 영혼이 아무리 옥룡전을 찾아오라 하신들, 십여 세 여아가 어찌 누만 리를 찾아가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지하에 가 모친을 뵈옵만 같지 못하다.’ 하고 자결코자 하더니, 다시 생각하매, ‘나는 죽어 관계치 않거니와, 어린 동생을 어찌 차마 버리리오.’

하고, 설운 마음을 억제하고 동녘을 바라보니 버들가지 난만한지라. 그것을 취하여 먹은즉 적이 요기되매, 다시 모친 묘에 하직하고 동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른즉 산수는 기구하고, 송죽은 소슬하여 슬픈 마음을 돕는 곳에 일색이 저물고 인적이 끊인지라.

서로 붙들고 앉았다가 동편을 바라보니 한 누각이 있거늘, 마음에 반가이 여겨 찾아들어 가니, 사람은 없고 전상(殿上)에 일위 부인이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황포를 입고 앉았으니, 보기에 가장 거룩한지라. 나아가 재배하니, 부인 왈, “너희 어떤 사람으로 이 심산에 들어왔느냐?” 채옥이 대왈,

“소녀 등이 당금 승상 양태백의 자녀러니, 부친이 애첩 송녀의 참소를 듣고 모친과 소녀 등을 내치시매, 모친은 영산에서 기세(棄世)하사 동해 승산 옥룡전으로 가신고로 소녀 등이 방금 찾아가다가 이곳에 이르렀사오니, 바라건대 부인은 어여뻐 여기사 앞길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이다.” 부인이 듣고 가궁히 여겨 시녀를 불러 음식을 가져오라 하여 주거늘, 채옥 등이 받아먹기를 다하매, 부인 왈, “승산이 여기서 만 사천 리나 되니 너희 어찌 가려 하느냐. 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머물고 명일에 떠나가라.” 채옥 등이 사례 왈,

“죽게 된 인생을 선찬으로 먹이시고, 또 앞길을 가르쳐 주시니, 은혜 태산이 낮아웁거니와, 감히 묻잡나니 부인 칭호를 듣고자 하나이다.”

부인 왈,

“나는 이 산 지키는 후토부인이노라.”

하고, 인하여 간 데 없거늘, 채옥 등이 대경하여 살펴본즉, 누각은 없고 나무 아래 바위 밑에 있는지라.

그제야 산신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배사하고, 그 바위 밑에서 밤을 지내더니, 문득 큰 범이 발톱을 세우며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물려 하거늘, 채옥 등이 대경실색하여 죽는 줄로 알아 이에 담을 크게 하고 경계 왈,

〔“우리 남매 물욕을 탐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서모의 [B] 참소를 만나 모친을 여의고, 우리들이 길로 헤매이다가 이곳에서 삼 남매 목숨이 진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며 대성통곡하니, 그 범이 듣는 체하다가 한 번 곤두치더니, 문득 중이 되어 채옥 등을 붙들고 왈,

“나는 이 산 신령이더니, 너희 정성을 시험코자 하여 내 변하여 범이 되어 너희를 놀람이러니, 도리어 불안하도다.”

하고, 바랑을 열어 실과를 내어 주며 왈,

“이것을 먹으면 기갈을 면하리라.”

하거늘, 채옥 등이 받아먹은즉 정신이 쇠락<sup>\*</sup>한지라 끓어 사례 왈,

“어린 인생을 이같이 관대하시니 은덕이 망극하거니와 동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결초보은하리이다.”

그 중이 왈,

“너희 소원을 아노니, 이 고개를 넘어가면 천황보살이 있을 것이니, 거기 가 지성으로 빌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매, 부디 조심하여 가라.”

(중략)

석불이 가로되,

“네 말이 심히 가공한지라 길은 가르쳐 주려니와, 네 능히 득달할소냐.”

채옥 왈,

〔“십여 세 아이로 누만 리 득달함을 어찌 기필(期必)하리오 [C] 마는, 다만 주야 원하는 바는 한 번 모친을 뵈옵고 죽고자 하오니, 가다가 길에서 죽사와도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석불 왈,

“네 정성이 감천(感天)할지라, 네 모친을 만난 후 돌아와 내 제자 됨이 어떠하뇨.”

채옥 등이 왈,

“모친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가이없삽거든, 하물며 제자를 삼고자 하시니, 이는 가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오니 어찌 거역하리이까.”

석불 왈,

“그러하면 내 낙화<sup>\*</sup>를 주나니 이를 가지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 행하라. 이곳에서 동으로 삼십 리를 가면 돌문 둘이 있되, 좌편은 서양국으로 가는 길이요, 우편은 용궁으로 가는 문이라. 낙화를 흔들면 우편 문이 열릴 것이니, 그 문에 들어 십 리쯤 가면 길을 막는 선관(仙官)과 짐승이 있을 것이니, 낙화를 흔들며 여차여차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구하여 줄 선관이 있을지라. 이렇듯 하여 자연히 옥룡전에 이르러 너의 모친을 볼 것이니, 부디 조심하여 가라.”

하거늘, 채옥이 절하러 몸을 굽힐 즈음에 잠을 깨니 남가일몽이라.

몽중의 수작이 명백하고, 또 곁에 낙화가 놓였거늘 채옥이 기이히 여겨 천황보살의 영험함에 감격하여 즉시 백배 하직하고, 인하여 동으로 삼십 리를 가서 과연 돌문 둘이 있거늘, 낙화를 한 번 흔드니 그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 작자 미상, 「양풍전」 —

\* 쇠락: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마음속으로 간절하지만 감히 청하지 못한 것이나 본디부터 바라던 바.

\* 낙화: 모란의 별칭.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채옥은 화관과 황포를 통해 후토부인이 산신임을 알아차렸다.
- ② 범으로 나타난 신령은 시험을 통해 채옥 남매가 지닌 능력을 알아보고자 했다.
- ③ 집에서 쫓겨난 채옥 남매는 영산에 가 할미가 죽은 것을 알고 절망감을 느꼈다.
- ④ 채옥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 ⑤ 석불은 채옥 남매가 자신의 말대로 용궁으로 가더라도 옥룡전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양풍전」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환상의 여로’가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여로는 인간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난관이 있어 이르기 힘든 천상계를 향해 가는 것으로 인간계와 천상계를 매개하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비롯되고 있다. 여로에서 인물들은 당대 서민들이 복을 기원했던 여러 초현실적 존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로에서 현실성과 교섭하고 있는 환상성은 인물들이 여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① ‘옥룡전’을 ‘누만 리’ 떨어져 있어 득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설정한 것은 천상계가 인간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르기 힘든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채옥 등’이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과 ‘범’이 준 ‘실과’를 받은 것은 환상성이 여로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채옥이 모친으로부터 ‘옥룡전을 찾아오라’는 말을 들은 꿈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매개하며 환상의 여로를 시작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행한 행동으로 ‘채옥 등’이 ‘석불’의 인정을 받은 것은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채옥이 꿈에서 ‘석불’로부터 받은 ‘낙화’를 ‘석불’이 알려 준 대로 현실에서 사용하여 ‘돌문’이 열리는 것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21.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도움이 필요한 인물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 ② [C]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낀 인물의 한을 표출하고 있다.
- ③ [A], [B]는 인물들 간의 대립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 ④ [A], [B]는 인물들이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A], [C]는 인물이 품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야란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한쪽 눈의 시야는 시선을 중심으로 코 쪽으로  $60^\circ$ 이고, 귀 쪽으로  $100^\circ$ 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두 눈의 시야는 약  $200^\circ$ 가 된다. 그러나 물체가 두 눈의 시야에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120^\circ$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두 눈의 시야가 겹치지 않는 양 귀 쪽  $40^\circ$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경우 '보는 것'은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주시하는 것이다. 물체를 주시할 때 물체의 상은 각막과 동공을 거쳐 안쪽 막인 망막에 맺히는데, 주시란 두 눈의 시선을 물체 쪽으로 돌려 물체를 똑바로 응시하여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 망막의 황반에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주시하는 시선이 주시선이 되고 응시하는 물체가 주시점이 된다.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 물체의 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망막의 황반에는 시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물체를 뚜렷하게 보려면 물체의 상이 두 눈의 황반에 맺혀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거나 움직이면서도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4개의 끈은 근과 2개의 빗근이 뇌 신경의 지배를 받아 ⑦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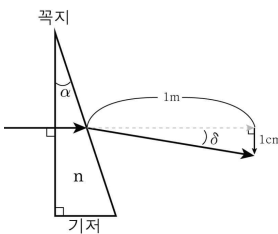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동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폭주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때 폭주 운동의 양을 폭주량이라고 하고 폭주량은 미터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터각은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역수,  $\frac{1}{\text{물체까지의 거리}}$ 로 표시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동공 간의 거리인 동공중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더라도 실제 폭주량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폭주량을 알려면 미터각에 동공중심거리를 곱한 값인 프리즘디옵터를 구해야 한다. 만약 동공중심거리가 6cm인 사람이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한다면 이때의 미터각은  $\frac{1}{1m} = 1\text{MA}$ 이 된다. 그리고 1MA에 동공중심거리인 6cm를 곱하면 프리즘디옵터는 6△가 된다.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위가 일어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복시는 크게 생리적 복시와 사시성 복시로 나눌 수 있는데 생리적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며, 사시성 복시는 뇌 신경의 이상으로 끈은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다.

[A]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비교차성 복시라고 하고, 귀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교차성 복시라고 한다. 복시인 경우에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황반에 맺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기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힌다. 하지만 뇌에서는 오른쪽 눈이 편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시선이 실제보다 귀 쪽으로 향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의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생리적 복시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편위가 발생한 눈을 가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반면 사시성 복시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프리즘은 두 개 이상의 평면이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는 투명체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프리즘의 평면이 교차하는 점을 꼭지, 교차각을 꼭지각, 꼭지의 반대쪽을 기저라고 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스넬의 법칙을 따라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굴절률이  $n$ 인 소재의 직각 프리즘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굴절률( $n$ )에서 1을 뺀 값에 꼭지각( $\alpha$ )을 곱하면 빛의 꺾임각( $\delta$ )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빛이 1m 떨어진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있을 때의 꺾임각을  $1\Delta$ 라 한다. 만일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위되어 폭주량이 작다면 빛이 프리즘 렌즈를 통과할 때 코 쪽으로 굴절되게 하여 차이 나는 폭주량만큼 꺾임각을 형성하여 주시선을 바꿀 수 있다.

\*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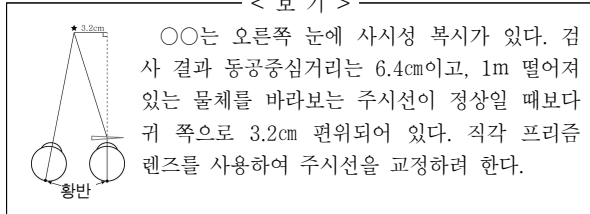


<그림>

2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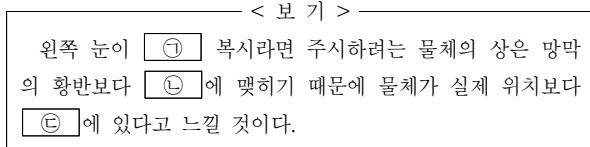
- ①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커진다.
- ② 끈은근과 빗근은 뇌 신경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된다.
- ③ 생리적 복시는 피로가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다.
- ④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⑤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는  $120^\circ$ 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굴절률이 4.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면 직각 프리즘 렌즈의 꼭지각은  $1\Delta$ 이겠군.  
 ② 주시선의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직각 프리즘 렌즈를 굴절률이 큰 소재로 만들수록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겠군.  
 ③ 꺾임각이  $3.2\Delta$ 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면 1m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오른쪽 눈의 황반에 맺히겠군.  
 ④ 직각 프리즘 렌즈를 통해 주시선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면 폭주량은 6.4보다 커지겠군.  
 ⑤ 콘은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차성 복시라고 할 수 있겠군.

24.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
| ① | 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② | 교차성  | 귀 쪽 | 왼쪽  |
| ③ | 비교차성 | 코 쪽 | 왼쪽  |
| ④ | 비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⑤ | 비교차성 | 귀 쪽 | 왼쪽  |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망막에서 황반이 편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④ 동공중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⑤ 폭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우묵배미의 맨 꼭대기 부자집 김 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맨 아랫집 불들네로 방을 옮기면서 부터였다. 불들네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그런 이유 말고도 매달 달미를 물고 늘어지는 생활비의 중압, 게다가 여성지 연재인데 설마 어쩌랴 싶은 다소 시건방진 속제안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린 때문이었다. 해서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그 회석되고 석고화된 관념의 득세와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하여

①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의 식어 빠진 「달래강」의 연재를 『소설계』에까지 끌고 가 2부를 써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년 안에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잡지사로부터 미리 타 쓴 계약금 2백만 원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을 끄적이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다. 책들은 반도 채 못 읽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다 관심권 밖으로 사라졌고, ㉠아랫마을 출입이 잦아지고 쓸데없는 술주렁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들랑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이거 낼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는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면서 혼자 곰곰이 또 이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집안의 시끌썩한 분위기가 탓이었다. 그들을 한 가구씩 차례차례 내보내야 했다. 안주인에게 애당초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달이 차면 정 씨를 내보내고 완값에 안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안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탄 방들도 방세가 네댓 달씩 밀려 있었고 또 그들은 선뜻 방을 비워 줄 사람들이 못 되었다.

㉡아니었다. 그것은 분위기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대뇌 탓이었다. 더 이상 샘플을 저어 올릴 수 없는 나의 소설적 비재(非才) 탓이었다. 고갈되고 고갈된 나머지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아니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 제2, 제3 장편이 연이어 안겨다 준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출판 경기의 지독한 불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양가주방적 지식인의 황금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70년대 말기 정치경제 사회 현상의 전 분야에다 겹도 없이 진찰기를 들이댈 수 있었던, 저 끝 간 데 없이 치솟던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일거에 잠재워 버리고 만 일련의 격변 때문이었다. 한차례의 폭설과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겨울의 주인은 입에다 마스크를 대지 않고 함부로 거리를 나돌아 다니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을 것 등등의 몇 가지 시민적 준수 사항을 공개리에 엄격히 하달했다. 글을 쓰는 우리 동료들은 연신 아얏아얏 소리를 내며 흠어져 가고 있었다. 문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광화문과 낙원동의 술집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은근히 걱정이었다. 광장을 잃은 급진주의자들은 피켓을 철수하고 지하로 강당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인세를 받으며 할랑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달미를 잡혀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비평가와 신문 문화 면은 연일 작품 기근, 신인 부재를 속삭여 대고, 소설계의 기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70년대가 막을 내리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겨우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절친인 '유 형'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급히 전시장을 찾는다.

“뭘, 대중대중 모르지. 그까짓 방 하나 구하는 걸 갖구선 뭘 그래? 방 구한다는 게 대체 언제부터야?”

말은 거칠고 화를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실 뜨끔했던 나는 슬쩍 농으로 받아들이고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 나는 이 야속한 친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 주고 싶었으나 무안을 참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인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친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이었고, 그는 왜 친구 한 사람이 방 한 칸 때문에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가를 이해해 보기를 어언간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원주 가기 전의 문막은 유 형의 고향이었고 그쪽에는 그의 고향 동료들이 많았다. 그가 문막 읍내에서 썩 떨어진 시골 마을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한 것은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㉔ 그가 비난 친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그에게 들려줄 용기를 나는 못 갖고 있었다. 그건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껴안고 살아 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㉔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각해 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그는 어쩌면 그까짓 방 한 칸 때문에 찢쩍맨 저 한여름의 고투가 한갓 생선 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었을까. 친구가 던진 그 슬픈 말 한마디가 잠시의 실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 박영환, 「지상의 방 한 칸」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7.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대작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 형의 태도는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 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기 일췌였던 볼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과 TV의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
- ⑤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29. ㉔와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㉔와 달리 창작과 관련된 인물의 자존감이 자기 성찰을 통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㉔는 ㉔와 달리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㉔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㉔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㉔에 이어 ㉔를 제시하여, 인물이 작가로서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에서 비판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㉔와 ㉔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3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이는데, 그 중 정책 수립, 기업 관리, 의학 분야 연구, 마케팅 등에 널리 쓰이는 것이 연관성 분석이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든다면,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관 규칙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의 형태를 띤다. 이때 ‘고객이 X를 산다.’는 조건이 되고 ‘고객이 Y를 산다.’는 결과가 된다. 연관 규칙은 ‘X→Y’와 같이 조건과 결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학의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유용한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연관성 측도의 기본은 발생 빈도로, 이와 관련한 주요 측도에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다. 먼저 지지도는 전체 거래에 대해서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X→Y’의 지지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으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동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는 다섯 가지의 품목만 취급하는 편의점에서 다섯 명의 고객이 한 번씩만 거래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표>에서 생수와 빵을 모두 산 경우는 다섯 번의 거래 중 두 번이므로, ‘생수→빵’의 지지도는 2/5(40%)이다.

고객	구매 품목
1	빵, 생수, 우유
2	빵, 휴지, 우유
3	빵, 세제, 우유
4	빵, 생수, 세제
5	생수, 휴지, 우유

<표> ‘빵→생수’의 지지도도 2/5이므로 ‘X→Y’와 ‘Y→X’의 지지도는 같다.

신뢰도는 조건의 구매가 발생하였을 때 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다. 즉 ‘X→Y’의 신뢰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X를 구매하는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조건의 구매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의 구매가 많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표>에서 생수를 구매한 세 번의 거래 중에서 두 번만 빵을 샀으므로, ‘생수→빵’은 2/3(약 66.7%)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런데 ‘빵→생수’의 신뢰도는 2/4(50%)이다. 이처럼 ‘X→Y’와 ‘Y→X’의 신뢰도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향상도는 어떤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날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를 알려 주는 측도이다. 향상도는 신뢰도를 기대 신뢰도로 나눈 값이다. 기대 신뢰도란 ‘X→Y’에서 Y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X→Y’에서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X와 Y의 구매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관 규칙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연적 기회보다 우수하여 마케팅 전략을 ④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반면에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다는 것이므로 이 연관 규칙을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상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의 연관 규칙을 만들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음의 연관 규칙은 결과에 ‘이다’ 대신에 ‘아니다’를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관 규칙과 유

[A]

사하다. 예컨대 ‘X→Y’의 신뢰도가 30%이고, ‘X→Y’의 기대 신뢰도가 40%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X→Y’의 향상도는 3/4으로 1보다 작다. 따라서 이를 음의 연관 규칙, 곧 ‘X를 사면 Y를 사지 않는다.’로 전환하면, 신뢰도는 70%(100% - 30%)가 되고, 기대 신뢰도는 60%(100% - 40%)가 되므로 향상도는 7/6로 1보다 커지게 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므로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기도 좋다. 그러나 분석하려는 품목의 수가 늘어나면 연관 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제거하는 최소지지도 가지치기가 있다. 이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하위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여 품목들이 분석자가 임의로 설정한 최소지지도를 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관성 분석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는 분석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선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를 ㉠ 시차 연관성 분석이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여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이러한 연관성을 토대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순서를 알려 주는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동일한 분석 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분석 대상의 식별 정보도 필요하다.

## 30.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 쓰이는 측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과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분석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3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서 분석하려는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면 연관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② 최소지지도 가지치기에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 ④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 ⑤ 연관성 측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발생 빈도이다.

32. 윗글의 <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빵 → 생수’가 ‘빵 → 휴지’의 지지도보다 높은 것은 ‘빵’을 ‘생수’와 함께 구매한 경우가 ‘빵’을 ‘휴지’와 함께 구매한 경우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 ② ‘휴지 → 우유’의 신뢰도가 100%인 것은 ‘우유’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휴지’를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생수 → 빵’과 ‘생수 → 우유’는 ‘생수 → 휴지’보다 신뢰도가 높다.
  - ④ ‘우유 → 생수’의 지지도와 ‘생수 → 우유’의 지지도는 같다.
  - ⑤ ‘빵 → 세제’의 신뢰도와 ‘세제 → 빵’의 신뢰도는 다르다.

33.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어느 병원에서 □□ 질환을 앓은 환자들을 추적하여, 이들 가운데 이전에 ○○ 질환을 앓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 질환을 앓은 환자의 경우에는 □□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도 하도록 하였다.

ㄴ. 대형 유통 업체에서 10월 한 달간 라면과 계란의 판매대를 붙여 놓았을 때와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을 조사하여,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두 상품의 판매대를 멀리 떼어 놓기로 결정했다.

ㄷ. 백화점에서 자사의 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TV를 산 고객들이 재방문하여 고성능 스피커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를 토대로 TV를 산 고객들에게 고성능 스피커에 대한 상품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ㄹ.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회원들의 웹 페이지 방문 순서를 분석하여, 주로 ‘A 웹 페이지 → B 웹 페이지 → C 웹 페이지 → ……」 순으로 방문한다는 규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 경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웹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ㄴ, ㄹ

34.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어느 매장에서 고객들이 팔빙수를 만들기 위해 구매한 팥(A), 인절미(B), 콩가루(C)의 전체 거래 정보에 대해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이를 통해 발견한 연관 규칙의 일부이다.

연관 규칙 (X → Y)	기대 신뢰도	신뢰도	향상도
A → B	42.5%	55.6%	1.308
B → C	40.0%	35.3%	0.883
C → A	45.0%	50.0%	1.111
:	:	:	:

..... ㉠  
..... ㉡  
..... ㉢

- ①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은 ㉡의 연관 규칙에서 A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보다 크다.
- ②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다.
- ③ ㉠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보다 크다.
- ④ ㉠의 연관 규칙이 ㉡의 연관 규칙보다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하겠군.
- ⑤ ㉠의 연관 규칙을 음의 연관 규칙인 ‘A → C’로 전환하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군.

3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변호사는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
- ②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
- ③ 과장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 ④ 목수는 목재를 잘 자르기 위해 톱날을 세웠다.
- ⑤ 우리 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을 세웠다.

[36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패고 엽을 들어 고개 숙여  
①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닐었으니 가을별 명량하다  
② 알팍 마당 닭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파로다  
릿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㉞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꿰어 내어 추양에 마전하고\*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㉟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발재 망구: 농사 도구들.

\*마전하고: 표백하고. \*마로 재어: 재단하여.

(나)

㉑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로난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디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삼월 삼일 날의

㉒ 강남서 나온 제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된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사월 초파일에

관동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것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디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채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톱 차 구을등에 일월등 밝아 잇고

칠성등 버러난디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로난고

- 작자 미상, 「관등가」 -

\*답교: 다리를 밟는 풍속.

\*임고대하니: 높은 곳에 오르니.

(다)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뎅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술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어미 닭은 매나 술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 주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

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선생의 이미지다.

(중략)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 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抱卵)의 인고가 끝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출타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선생의 첫 빗갈이 가려진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㉓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으레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썩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 현기영, 「선생」 -

\*서리병아리: 이른 가을에 알에서 갓 병아리.

3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입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① ㉠은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은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④ ㉠은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⑤ ㉣은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은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술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디우는 ㉠ ‘사건’을 계기로 ㉡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바디우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로코뮌을 들고 있다.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바디우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탐색의 판단 기준을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 이룬다고 말한다. 즉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기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

의 집합체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디우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 진리를 만들어 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바디우에게 있어 용기란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1. 밑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2. ㉑과 ㉒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㉒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② ㉑은 ㉒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㉑ 자체가 ㉒은 아니다.
- ③ ㉒을 이루는 요소는 ㉑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④ ㉑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㉒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⑤ ㉒보다 ㉑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43. ㉓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44.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45. 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한다고
- ② 성취(成就)한다고
- ③ 탐구(探究)한다고
- ④ 포괄(包括)한다고
- ⑤ 표방(標榜)한다고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